

가축분뇨 액비, 이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

- 과제명 : 양질 액비 관정용 액비부숙도 측정장치 개발
- 담당 : 축산환경과 최동운 031-290-1715

“언제 뿌려야 하지?” 걱정 끝

가축분뇨의 84.3%가 퇴·액비로 자원화되고 있으나 가축분뇨 액비가 잘 발효되었는지, 또 언제 뿌려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. 잘못 뿌리면 냄새도 심하고 오히려 작물에 해를 줄 수도 있어 미부숙 액비사용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.

우리 원에서는 액비 실수요자인 경종농가에 악취 없는 부숙(썩혀서 익힘) 액비를 공급하기 위해 부숙 여부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개발했다. 액비의 색깔 및 냄새(악취가스)를 통해 부숙도를 측정하는 원리로, 빛의 투과율을 이용하여 액비의 색을 측정하는 색도 측정장치 개발과 액비의 악취 가스 측정장치로 구성되었다. 양질의 액비사용은 화학비료를 대체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.



액비의 색깔 및 냄새로 실시간으로 부숙도를 측정한다.